

한라산 레이다 정책 집행 부당 '경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 제기... 재검토 성과 특별자치도 '특별함' 유지 위한 도 차원의 노력 도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해 사업 재검토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

또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라산 항공로 레이다 조성 사업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 확보 문제와 정책 집행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지난 12일 시작된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6

일 마무리됐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4·3 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보험 입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를 했으며, 읍면동간 인구 편차 심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돌아보고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노력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시 재해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대책을 원칙으로 한 정비사업 추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해수면 상승률이 전세계 평균보다 3배 높아 해안지역에 대한 장기적 방재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위드코로나와 관련해 제주만의 방역체계 전환과, 사회적 약자나 소상공인 중심의 보호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고용 안정망을 강화

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에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의 소상공인 위한 제주도 차원의 정책마련을 주문해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악취 관리 지정 고시 과정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지적해 공식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특히 감사중 논란이 됐던 색달동 절대보전 지역내 오름에 허가된 항공로 레이다 조성 사업에 대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영부지 기부채납)의 상정을 보류하는 성과를

“행안부, 오등봉 특례사업 관심 가져야”

오영훈 의원, 국감서 지적



결과를 잘 살펴봐줬다”고 답했다. 또 오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사진)은 26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혜철 행안부 장관에게 “최근 제주시에서는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2의 대장동개발’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에 대해 “공원 일몰제 사업이 만료되면서 민간 특례 사업이 몇 개 지자체에서 시작됐다.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됐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각 기관 별로 처분하면 된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민간 특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 측면은 없는지(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제주시와 사업자 작성 협약서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처리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할 경우 책임을 제주시장에게 부여하고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기간 연장이나 비용을 보상해주는 내용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가) 이것도 국토부 협약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 처분 원칙에 부합하는지(의문인데),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전반적 사항을 행안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미현기자



햇살 가득 빛나는 사계리 26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청정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 강희만기자

대표이사 한마디에 월급 75만원 '인상'

제이디씨파트너스 감사 결과... 규정 없는 급여 인상·인사 발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 주식회사가 규정 없이 직원들의 월급을 마구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는 제이디씨파트너스에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제이디씨파트너스는 JDC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에 설립됐다.

감사 결과 개선 6건, 경고 4건, 주의·징계·기관주의 각 1건이 요구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난해 11월 10일 제이디씨파트너스는 면세점 관리소에서 박물관 관리소로 전보 발령된 직원 A씨의 연봉 기본급을 '전기안전관리자격' 기준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기본급을 월

237만6260원에서 월 312만7440원으로 75만1180원 인상했다. 하지만 제이디씨파트너스 규정에는 전기안전관리자격 기본급 기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올해 3월 31일 면세점 관리소로 복귀했지만, 당시 인상된 월 기본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 1일에는 국제학교 관리소에 근무하는 B씨를 직제에도 없는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기본 월봉도 31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30만원 인상했다.

제이디씨파트너스는 소속 대표이사의 방침을 받아 인사발령 및 기본급 조정이 이뤄졌다고 항변했지만, JDC는 근거와 기준이 없다며 불수용했다.

이 밖에도 제이디씨파트너스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계약업무 처리 △자산구입 및 관리 등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 당했다. 송은범기자

지방의료원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도,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출 실적 개선 위한 자구책 필요

내년도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제주·서귀포의료원에 27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도에서 수년간 운영비 등을 지원을 주고 있지만 만성적자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자구 노력을 담보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은 지난 2015년 1억9500만원의 흑자 이후 2016년 -5억8600만원, 2017년 -7억8200만원, 2018년 -10억7200만원, 2019년 -7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3억5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47억원의 손실 보조금을 받았다. 제주의료원에 임원중이던 일반 요양

환자들이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면서 기본 지출 비용이 감소해 흑자폭을 넓혔다. 올해도 흑자경향이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 의료원의 경영상태도 비슷하다. 지난 2020년 16억1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손실보상금 지원에 힘입어 8월 기준 3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도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면 제주·서귀포의료원의 경

영 상태는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주도는 내년에 제주의료원에 54억5800만원, 서귀포의료원 213억9400만원, (재)제주한약원 25억8000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9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고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적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대목기자

'2021 제주농협 귀농·귀촌교육' 교육생 모집

'2021 제주농협 귀농·귀촌교육' 개요

- 교육기간: 2021. 11. 10(수) ~ 11. 26(금) / 6회차
- ▶ 주 2회(수·금), 매회 4시간(14시~18시), 30시간 과정
- 교육장소: 농협제주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제주시 서서로 56)
- 교육내용
 - 정책분야: 제주 귀농·귀촌정책, 농업창업자금 지원절차 등
 - 영농기술: 과수, 전작, 토양비료, 친환경농업 등
 - 마케팅: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농어촌관광 및 6차산업 등
 - 인문학: 제주 역사·문화·향토음식, 농업기치 등
 - 현장학습: 역사·문화 탐방, 선농도 견학, 일손돕기 등

모집요강

1. 모집인원: 40명
2. 모집기간: 2021. 10. 28(목) ~ 11. 03(수), 09시 ~ 17시
3. 지원자격: 귀농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 * 단, 제주농협에서 주관하는 동일과정 이수료생은 신청불가
4. 지원방법: 방문접수(비차별 수강신청서 작성) ☞ 전화접수 불가
5. 선발방법: 선착순(조기 마감 가능)
6. 수강료: 무료(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에서 교육비 지원)
7. 접수처: 농협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제주시 서서로 56, 2층)
8. 문의사항: 농촌지원단 ☎720-1222

* 코로나19 단계 조정 및 기준인원 미달 시 교육이 연기(취소)될 수 있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職 員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 가스식 정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무료 내선전기실무 및 전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대 상	실업자/구직자/매출 1억5천만 미만 사업자 재직자
교육기간	11월 개강 예정 (7개월 과정)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 의	064-749-3434

★ 매월 최대 30만원 훈련수당 지급 ★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 전과정 기능사 실기 합격률 95% 달성 ★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 취득 및 문서작성 실무

대 상	재직자, 구직자(취업 목적), 매출 1억5천만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2021. 11. 17. ~ 2022. 10. 20
교육시간	월~금 (주 5회) 저녁 7시 ~ 10시
교육내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3가지 전부 수강)
문 의	064-749-3434

★ 자부담 276,970원 있음

주식회사 제원직업전문학교
jejuwon.com(신제주 은남동 버스정류소 앞)
T. 064-749-3434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